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제223호-창립2020.6.28



길목교회
THE WAY NEWS

주후 2024.10.27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죄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내 삶의 현장에서 사역합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 오후 3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제자와 선교사

주일에 한 번, 한 시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일상에서 모든 일 가운데 선교적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주일 하루만 중요한 날이 아니라, 24시간 내 일상이 선교지입니다.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협력목사: 김흥현
교육전도사: 전정민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홈페이지

theway.news



주일예배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 이길주 목사

입례송 "내 주님 서신 발 앞에"다같이

♩ = 64 F F A/C# Dm7 Cm7/A Gm7 G/B Bb/C C7

내 주님 서신발앞 에 내 주님 서신발앞 에 내

F/A Cm7 F7 Bb Gm7 C7 F Dm7 Gm7 Bb/C F

주님 서신발앞 에 나-옆드 러 경배합니 다 예배 합니 다

성서교독이사야 58장.....다같이

- 인도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성도들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 인도자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성도들 **혈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 인도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성도들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 인도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성도들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 인도자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성도들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 인도자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성도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 다같이 **너는 물 댄 등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참회기도.....나,이웃,교회,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성도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십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다같이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주보 감사노트에 기록해보세요

말씀과 나눔

말씀읽고 듣기..... 예레미야 44:15-23..... 다같이
말씀묵상과 권면 이길주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flat D G C F C Dm Gm C³ F

사랑의나눔있는곳에하나님께서계시도-다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말씀기도..... 다같이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다같이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제자와 선교사입니다

성도들 **보냄 받은 곳에서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인도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에서 지켜주십니다

성도들 **매일 기도하고 묵상하며, 정결하고 착한 행실로 살겠습니다**

다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시며, 은혜와 평강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노트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한 일 3가지 이상을 기록해보세요

성경말씀 메시지

(예레미야 44:15-23) 15-18 자기 아내들이 우상에게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남자들이 큰 무리의 여자들과 합세하여, 이집트의 바드로스에 사는 거의 모든 자들과 함께 예레미야를 찾아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며 전하는 말에 전혀 개의치 않겠소.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계속할 거요. 예전에 좋았던 시절에 우리 조상과 왕과 고관들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그 전통을 지킬 것이요. 그 시절에 우리는 유복했소. 먹을 것도 많았고, 살림살이도 넉넉했고, 불운한 일도 없었소. 그러나 ‘하늘 여왕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그만둔 뒤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소. 그 후로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는 학살과 기근뿐이요.”

19 그러자 여자들이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늘 여왕님’께 제물을 불살라 바치고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일을 계속할 겁니다. 우리 남편들도 응원해 주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우리가 여신 과자를 만들고 여신께 술 제물을 부어 바치는 것을 좋아합니다.”

20-23 예레미야는 거만하게 대답하는 그들 모두와 맞서 목청을 높여 말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의 왕과 고관과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바쳤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래서 더는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과 역겨운 행위들을 더는 참아 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땅이 황무지와 폐허와 으스스한 유령마을이 되었고, 지금도 그곳은 그 상태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재앙이 닥친 것은,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으며, 언약의 조건들을 무시했습니다.”

성경말씀 개역개정

[예레미야 44장 15-23절] 15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6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7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19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20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21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22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23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목상노트

감사찬양

하나님의 부르심

♩ = 65

Words & Music by
손경민



하나
작은



님의부-르심-에는-후회하심이-없네- 내가이자리-에 선것도-주의
나를부-르신-뜻을-나는알수없-지만- 오직감사와-순 종으로-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부-르심-에는-결코실수가-없네- 나를
길을가-리라- 때론내가연-약해-져도-주님날도우-시니- 주의



부르신-하 나 님의- 신실 하 심을- 믿 네-
놀라운-그 계 획을- 나는 믿 으며-살 리-



날부르신뜻- 내생각보다크고- 날향



한 계획- 나의지혜로측량못-하 나- 가장



좋은길로- 가장 완전한-길로- 오늘도 날이끄심-믿네
신실하신 주를찬-양해

교회안내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30
주일 공동체나눔	주일 오후 1:00~3:0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 ~오후 3:00
사모공동체모임	금요일 오후 1:00~4:00
1:1 청년 성경과외	정한 요일과 시간에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교육전도사	전정민	협력목사	김홍현
교육전도사	김상진	음악사역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조성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 가치추구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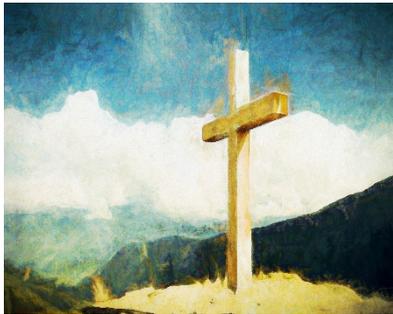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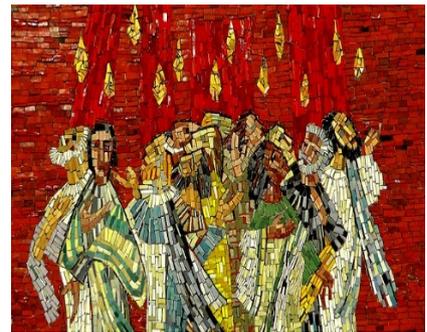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슬로베니아 선교 작성

길목교회는 11월1일부터 2025년 11월1일까지 1년동안 슬로베니아 선교를 담당하시는 이준희 선교사님 가정에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음달 1일부터 매월1일 개인당 1만원의 후원을 아래 내용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봉투 - 선교헌금에 체크 하시거나

통장송금 - 길목교회 통장으로 선교000 (000은 자기 이름) 매월 자동이체를 추천합니다

성도분들이 보내주신 헌금 만큼의 돈을 교회에서 더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선교헌금을 해주시는 1년동안, 매일같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는 선교지에 선교보고를 요청하거나 다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교지에서 보내주시는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 요청해오시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후방에서 지원하는 일만을 감당할 것입니다.

<슬로베니아 선교 사역>

선교사: 이준희, 박소은 (자녀: 이교현, 이이든)

사역: 문화교실, 카페사역, 한글학교 통한 복음 전파

기도제목

- 류블라나 한인교회를 통하여 슬로베니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 어학원 통해 언어 배우는 과정중인데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 카페를 통해 현지인들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중인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잘 감당하게. 현지 직원을 고용해야 비자가 나오게 되는데, 월급이 작아서 그만두고 나가게 되어 이 문제 잘 해결 되도록
- 자녀 교현이 비자가 아직 나오지 않은 문제, 새롭게 신청한 자녀와 아내 비자 잘 갱신되도록
- K-POP이 인기인데 문화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잘 연결되어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공동체 소식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방문카드>를 작성하신후 사역자들에게 전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오신 분은 예배 마친후 사무실에서 담임목사님 면담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식사 섬김 감사

오늘 점심은 송을순 집사님이 준비해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선교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년동안 선교지를 후원하는 일에 동참해주시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하지는 못하지만 현장에서 앞장서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후원하는 것으로 함께 선교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슬로베니아에서 문화사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준희 선교사님

내용: 매월 개인당1만원 + 교회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 정기후원

기간: 2024.11-2025.12 까지 1년동안 매월1일 (자동이체가 편합니다)

방법: 길목교회 통장으로 매월1일까지 선교000 식으로 또는 현금봉투로 가능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의 연결다리가 되어주세요

길목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그동안 선교와 구제 그리고 여러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제 이 일에 길목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주세요. 길목교회 성도분들이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정이 흘러가야 할 감동을 느끼고 뜻을 발견하셨다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고 선교의 길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 '하나님의 통로' 신청)

김흥현 협력 목사 부임

오늘부터 김흥현 목사님이 협력목사님으로 길목교회에서 함께 사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시는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중보해주시요.

이건명 집사님 해금연주 '시편40편' 음원 발매

이건명 집사님이 살리는TV 사역가운데 연주했던 음원이 정식 발매되었습니다. 음원사이트에서 유튜브에서 감상해주세요. 멋진 집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중보해주세요.

교역자 리트릿

일시: 2024.11.9 오전11시-오후5시 / 장소: 경기도 구리